러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2014년 5월 31일 pp. 79-116

민중의 문학에서 허위 민속으로:
비평 속에 드러난 소비에트 구술문학과 이데올로기*

서 선 정**

=개요=

본 논문은 191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혁명 전야로부터 소비에트의 성립과 새로운 사회 건설, 스탈린의 개인독재와 문화정책, 해빙기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러시아 역사의 이데올로기-정치적 변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구술문학의 운명에 주목한다. 구술문학은 문맹퇴치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민중들이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향유했던 문학으로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문화, 혹은 민중문화를 창조할 과제를 지닌 소비에트에서는 문학적 논쟁과 국가 정책의 대상이었다. 1910년대 프롤레트쿨트가 농민문화를 폄하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화로부터 배척하고자 하였다면, 1920년대에는 레닌이 이러한 태도를 니힐리즘으로 규정한 이후 구술문학은 민중들의 문화적 과거로서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했다. 국가적 규모의 문화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의도들을 배면화하고자 했던 스탈린 시대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예술 창작의 새로운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구술문학은 그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형으로 재평가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망 직후, 당대의 구술문학 연구와 정책에 대한 맹렬한 문학논쟁 속에서 스탈린 시대에 이룬 구술문학적 성과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노출되었다. 이전 시대의 폭압적 문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던 1950년대의 구술문학 논쟁은 1960년~1970년대 이르러 구술문학의 본질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주 제 어: 소비에트 문화, 구술문학, 허위 민속, 민중문학, 이데올로기, 스탈린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3-A00161).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20세기 러시아와 민중문화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에 일어난 변화는 고대 러시아의 세계가 새로운 유럽적 러시아로 바뀐 순간을 능가하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급격한 전환이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온 지배 권력과 민중 간 갈등 구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와 그것을 지탱해주던 가치들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다수인 민중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 질서로의 재편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의 기대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민중이 중심이 된 세계에서는 민중의 삶의 방식, 민중이 향유해온 문화가 주류가 됨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당대 러시아 혁명의 주도자들은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전복'된 질서를 지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질서와 체계가 사라진 완전한 신세계를 꿈꾸었다.[1] 즉, 혁명은 과거 역사 및 사회적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지상에 실현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었다. 추상 문화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과거 차르 시대의 질서를 내포하는 문화적 상징들과 벌인 대대적인 전쟁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이념화와 새로운 인간형으로의 개조를 위한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의 진보성, 나아가 이를 통한 유토피아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위한 포석으로서 사용된 과학주의들은 그러한 인식의 발로였다.[2]

---

1) 미래주의의 선언문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1912)에는 이러한 시대적 지향이 반영되었다. 동시대 문학뿐 아니라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의 고향이었던 푸쉬킨의 전통마저 고스란히 거부한 이 선언문은 모든 과거, 전통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에 대한 포부가 제시되어있다. 그러므로 인류를 그 첫 순간으로 되돌려 예술의 신기원을 주창한 신원시주의나 자연언어의 관습성에 저항한 초이성언어의 등장은 당연한 결과였다.

2)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위한 매체로서 레닌이 주목한 영화(선동열차를 통한)는 러시아에서는 마지막 황제의 대관식에서야 소개된 최첨단의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와 이념에 대한 낙관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소비에트 이념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는, 파블로프의 실험이 보여준, 조건에 의한 교육의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렇듯 초기 소비에트권력은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새로운 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의 면면에 과학주의를 심어놓았다. 이성과 과학이라는 슬로건은 소비에트 사회가 건설할 선진적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서 인식된 민중이 과거 창작해온 민중예술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특히 과거 예술을 부정하고 예술의 신기원을 추구하는 가운데, 삶이자 존재 자체로서의 예술이면서 예술적 관습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예술의 모델로서 민중예술의 원형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원시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명성을 지지한 예술가들이 주목한 원시 예술은 러시아 민중들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민중 예술이 아니라 선언적 의의를 지니는 관념으로서의 예술에 가까웠다. 오히려 실제 러시아민중에 의해 향유되어온 구체적인 민중 창작물들은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나 정치적 실용성에 의한 판단들에 의해 배척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혁명의 첫 순간부터 사상과 이념에 의해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민중문화의 운명은 이후 소비에트 사회에서도 지속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과 이념에 의해 좌우된 민중문화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20세기 소비에트 구술문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구술문학은 대부분 문맹이었던 민중들이 향유했던 유일한 문학적 양식이었고, 따라서 구술문학의 문제는 문학 전반에 관한 논쟁과 정책 속에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술문학의 문제를 거론한 문학조직들과 국가정책, 문학 비평들을 살펴봄으로써 혁명 전야로부터 소비에트의 성립과 새로운 사회 건설, 스탈린의 개인독재와 문화정책, 해빙기에 이르는 20세기 러시아 역사 속의 이데올로기-정치적 변화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구술문학의 운명에 대해 조망하게 될 것이다.

2. 1910~20년대: 구술문학 - 새로운 예술형식 vs. 구시대의 잔재

내전의 시대를 거쳐 소비에트가 출범하기 전까지 1910년~1920년대의 러시아는 기존의 질서가 거부되어 폐허가 된 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끓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형식을 갈구하던 예술계에서 민중 예술은 그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신원시주의나 미래주의 회화에 나타난 민중예술의 자취[3], 마야콥스키의 시 속에 반영된 구술 문학의 언어[4], 크루쵸늬흐나

미래를 보장하는 듯 보였다. 구시대를 감성, 불합리, 인습에, 신시대를 과학적 성과와 기술, 합리와 이성과 엮어 놓은 것이었다.

흘레브니코프의 글 속에서 드러나는 주술적 언어 등은 그러한 실험들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민중의 예술을 재료로 이러한 실험을 시도하던 이들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던 또다른 혁명의 주창자들은 민중의 구술 문학을 배격하였는데, 혁명 직후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 결성된 프롤레트쿨트(Пролеткульт)나 라프(РАПП)가 바로 그들이었다. 보그다노프(А. А. Богданов)를 위시한 프롤레트쿨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로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그러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아직 문화적 창조력을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진정으로 힘있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화적 전통을 일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독창적인 예술을 창출하기 위한 진정한 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하는 것이었다.[5] 문제는 이들이 농민을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토대가 되는 노동자계층과 완전하게 동일시하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층이 건설하게 될 프롤레타리아 문화로부터 농민의 문화를 배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술문학은 그러한 농민문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6] 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구시대의 그 어떠한 계층과도 동일시 될 수 없었고, 그것이 창출하게 될 문화 역시 모든 구시대의 문화로부터 차별화된 것이어야만 했다. 부르주아 시대에서 예술이 유희였던 것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의 예술은 마치 노동처럼 삶 그 자체였으므로, 그것은 과거의 예술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예술로 전망되었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계층과 그 문화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간주한 프롤레트쿨트인들은 구세계에 대한 민중의 오랜 이해가 집적된 결과물로서의 구술문학을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이는 혁명 이후 소비에트

3) 라리오노프나 포포바 등의 회화에서는 원시예술에 대한 지향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통 민속공예들의 전형적 문양과 패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4) 마야콥스키의 시가 구술문학의 언어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어떻게 시를 만들 것인가(Как делать стихи)」(1926)에서 마야콥스키는 차스투시카(частушка) 장르의 언어를 표준으로 새로운 시 형식을 논의하였다.

5) А. А. Богданов(1924) “Пролетариат и искусство(1918),” *О пролетарской культуре (1904~1924)*, Л.: Издательск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Книга», С. 117-124.

6) 프롤레트쿨트인들의 이러한 지향성으로 인해 이후 소비에트 농민출신 시인들(ново-крестьянский поэт)들의 작품마저도 배격되었다.

가 패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동안 구술문학이 민중의 세계를 드러내는 예술체계로서 거부당한 유일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혁명을 통해 신기원을 이루고자했던 시대정신의 반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구술문학 연구 결과에 대한 오해와 이로 인해 왜곡된 이론들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구술문학 연구는 베셀롭스키(А. Н. Веселовский), 밀레르(В. Ф. Миллер) 등이 주축이 된 역사학파(Историческая школ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 구술문학이 실제 역사적 과거의 반영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역사학파는 텍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건, 인물, 시대 및 공간과 연계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록문학적 자료를 참조하였는가에 대해 추적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과제로 여겼으므로 그들의 연구는 역사적 현실의 보다 직접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는 브일리나와 역사가요들에 집중되었다. 이를 위해 구술 텍스트를 연대기 및 역사적 사료들과 비교한 후 발견된 상호유사성에 근거하여 여러 가설들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구술을 통해 역사적 현실이 변형된 과정을 추적하였는데, 특히 실연(實演)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구술 문학 텍스트의 내용과 예술적 표현들의 최종 전달자가 민중들, 농민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스코모로히와 같은 전문적인 가수들이 상류 계층들의 유희를 위해서도 불렀을 것이므로 때로는 듣는 청자들인 상류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도 발전하였을 것이라 결론지었다.[7] 역사학파 연구자들의 이러한 결론은 사실 브일리나를 비롯한 구술문학 텍스트들을 상류 계층들을 위한 유희의 도구로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은 민중적인 민주적 사상의 계기를 찾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평가된다.[8] 다만 계급성의 문제는 역사학파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구술문학의 창작 계층과 그 사상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후 역사학파

---

7) Ю. М. Соколов(1941b)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Упедгиз, С. 86-93.

8) 밀레르(О. Ф. Миллер)는 일리야 무로메쯔가 등장하는 브일리나 텍스트들에서 종종공후나 그의 근위부대가 칭송되는 대신,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О. Ф. Миллер(1869) *Илья Муромец и богатырство киевское. Сравнительно-крит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оевым составом народного русского эпоса,* СПб., С. XXIII; Т. В. Зуева и Б. П. Кирдан(2001)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С. 42에서 재인용.

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계급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최초 연구자들의 의도를 왜곡시킨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11년 켈투얄라(В. А. Келтуяла)는 브일리나 뿐 아니라 구전 창작물의 모든 종과 유형이 민중 대중이 아닌 그 상층부에서 탄생하였으며, 따라서 고대 러시아 민족 문화, 고대 러시아 문학과 고대 러시아 세계관의 진정한 창조자가 민주적인 민중이 아니라 민중의 소수에 불과한 그 상층 지배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9] 그 뒤를 이은 밀레르(М. Миллер)는 역사가요의 발생을 추적하면서, 삶이 상대적으로 유희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유한 도시들, 즉 민족 문화가 개화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 풍요와 잉여가 넘치는 곳, 삶이 더욱 강하게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구술문학에 대한 요구가 생성되었을 것이고 이때 공후나 공후무사(дружина)계층으로부터 멀지않은 부류들에 의해 구술문학이 창작되고 전파되었을 것이라 결론지었다.[10] 이렇듯 역사학파의 일부 연구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술문학의 궁정 유래설은 결과적으로 이들 초기 급진적 혁명주의자들에 의해 구술문학이 배격될만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었다.[11] 그리하여 혁명의 물결 속에서 과거 민중문화의 자산인 구술문학 텍스트는 새로운 사회를 주창하는 자들의 문화적 전망 속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나 시대의 정치적 요구가 변모하면서 문화정책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술문학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태도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1919년 내전이 끝난 후 1920~21년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고 1922년 공식적인 소비에트 연방을 선포하면서 혁명의 핵심적 주체에서 공산당의 집행부로 변모한 기존의 혁명 세력들은 더 이상 구세계로부터의 절연의 기치보다는 소비에트 사회의 실질적인 건설을 시대의 당면과제로 삼았다. 프롤레타리아가 중심이 된 계급적 투쟁이 가장 주요했던 1910년대에는 새로운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구시대의 질서의 전복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급성에 대한 규정은 가장 첨예한 이론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전 종식 후 이념적 분열을 극복하고 공산당이 패권을 장악하게 된 20년대에는 피폐해진 경제를

9) В. А. Келтуяла(1911) *Курс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Ч. I, Кн. II, М., С. VI-VIII.

10) В. Ф. Миллер(1924)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былинного эпоса,* Т. III, М.: Госиздат, С. 27-28(초판은 1912년).

11) Т. В. Зуева и Б. П. Кирдан(2001), 356.

되살리고, 공산당이 장악한 새로운 사회의 저력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에 내전으로 피폐해진 러시아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공업과 은행의 국유화 및 부르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는 프롤레타리아만으로는 그들의 당면과제를 이룰 수 없었다. 이에 레닌의 기치 아래, 그들은 중간계급으로서의 소부르주아와 인텔리겐치야와의 화해를 시도하게 된다.[12] 이러한 전략의 수정은 소비에트 문화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 즉, 과거를 부정한 카오스적인 신기원, 혹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아름다운 과거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로부터 소비에트적 문화를 건설하자는 실질적인 목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13] 실제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지닌 새로운 인간형, 그것도 구세계의 엘리트들과 같은 지적 소양을 지닌 노동자 계급을 양성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추구한 레닌의 문화 정책은 19세기적인 계몽주의적 이상을 닮아 있다고 평가된다.[14] 그런 의미에서 레닌은 과거의 예술 전통에 대한 프롤레트쿨트와 미래주의자들의 경멸적 태도를 허무주의로 비판하였고, 1910년대에 막강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여 이미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프롤레트쿨트를 사실상 무력화하였다.[15]

구술문학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대립시켰던 프롤레트쿨트의 소멸은 연쇄적으로 구술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1920년대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계에서는 스카프트이모프(А. П. Скафтымов)[16]를 위시한 형식주의자들이 주류로 등장하였다. 역사학파에 대한 반

12) 스티브 스미스(2007)『러시아혁명-1917년에서 네프까지』, 류한수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104-122쪽. “레닌은 인텔리겐치야를 경멸했지만, ‘아는 것 많고 경험 많고 일 잘 하는 사람들’ 없이는 혁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재빨리 이해했다.”

13) В. И. Ленин(1967) “О пролетарской культуре(1920),”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41,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336-337.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시대의 가장 값진 성과들을 버리는 대신 인류가 2천년에 걸쳐 이룬 사상 및 문화 발전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재편하고 수용함으로써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로서 전 세계 역사적 의의를 성취하였다. 모든 착취에 저항한 최근의 투쟁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질적 체험을 통해 독려된 바 있는 앞으로의 활동은 오로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때에라야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발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14) 올랜도 파이지스(2005)『나타샤 댄스』,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639-648쪽.

15) “О Пролеткультах,” *Правда,* 1 декабря 1920 года; 프롤레트쿨트를 민중계몽위원회[Наркомпрос(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а просвещения)] 한 분과로 귀속시켜 대중교화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용이자, 시대적 경향의 반영이기도 한 형식주의 연구는 역사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구술 텍스트의 형식과 구조가 그 자체로서 지니는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미적 체계이자 객관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구술문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역사적 맥락, 계급성, 혁명의 이념으로부터 보호된 진공 상태의 구술문학에 대한 연구였던 만큼 이념지향적 소비에트에서 구술문학에 대한 혁신적 재평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1910년대에 이루어진 구술문학에 대한 양가적인 평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과거 민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의 역사는 각 시대에 이루어진 구술문학의 채록과 출판의 정황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19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채록은 주로 역사학파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는 구술 텍스트의 역사적 근원을 밝혀줄 수 있는 새로운 근거 텍스트를 찾기 위해 이루어졌으나,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이전까지 주된 채록의 대상이 되었던, 구시대의 질서를 반영하는 전통적 장르들에서 벗어나 차스투시카와 같은 새로운 장르들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17]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1910년대에 이루어진 구술문학의 채록은 새로운 장르에 주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채록의 연장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정리였고, 구술문학에 대한 혁명적 급진주의자들의 태도를 반영하듯 확연한 정체기를 겪고 있었다. 이 점은 1920년대에 이루어진 대규모 구술문학 채록의 붐과 대비시켜보면 더욱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1920년대에 구술문학의 채록을 독려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채록자들을 위한 교본[18]이 출판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에 일어난 구술문학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어준다. 또한 이들 교본들에 나타난 지시사항들은 당시 구술문학에 대한 관심의 방향성 역시 드러내어주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장르뿐만 아니라 전통장르로부터 나왔지만 새로이 형성된 장르들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언급하며 신생장르에 대한 관심을 지시하고

16) А. П. Скафтымов(1924) *Поэтика и генезис былин,* М.; Саратов: Книгоиздательство В. З. Яксанова.

17)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출판물들을 지적할 수 있다: В. И. Симаков(ред.)(1913) *Сборник деревенских частушек,* Ярославль; Е. Н. Елеонская(ред.)(1914) *Сборник великорусских частушек,* М.

18) М. К. Азадовский(1924) *Беседы собирателя. Пособие для собирателей устной народной поэзи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Сибири,* Иркут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 Б. М. и Ю. М. Соколовы(1926) *Поэзия деревни.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собир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устной словестности,* М: «Новая Москва».

있거나,[19] 차스투시카나 구술 스카즈와 같이 현실에 매우 재빠르게 반응하며 생성되고 있는 구술문학 장르들은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документ)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20] 이 시대의 구술문학에 대한 채록과 연구가 전통장르보다는 신생장르들을 향하고 있으며, 민중의 과거 전통으로서의 구술문학이 아니라 당대의 생생한 삶을 전달하는 장르로서의 구술문학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구술문학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서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탐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다년간에 걸친 탐사들, 1926~1928년 "르이브니코프와 길페르딩의 자취를 따라서(По следам Рыбникова и Гильфердинга)"라는 표제 하에 소콜로프 형제(Б. М. и Ю. М. Соколовы)에 의해 주도된 채록탐사, 1926~1929년 예술사연구소 사회학분과의 탐사와 같은 대규모의 탐사들이 그 예이다.[21] 이러한 탐사대의 구성은 공식적인 구술 문학 연구 기관의 양성과 더불어 구술 문학 연구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1920년대는 레닌이 급진주의자들의 전통에 대한 부정을 문화적 니힐리즘으로 비판한 이후 전통에 대한 관심이 경주되었고,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신문화 창조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풍성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이 대거 생성되던 시대에 비로소 태동된 차스투시카와 같은 신생장르들[22],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르들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전통이 그 자체로서 조망된 것이 아니라 계급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해된 전통으로서 편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구술문학에 대한 연구는 소비에트의 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국가적 문화 정책 속으로 서서히 편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

19) Ю. М. Соколов(1926) "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ольклор,* Т. 1, М.: ГАХН, С. 23.

20) М. К. Азадовский(1924), 38-39.

21) В. К. Соколова(1965) "Советска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к 50-летию Октября," *Русска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ысшая школа», С. 404-414.

22) Т. В. Зуева и Б. П. Кирдан(2001), 358-367. 차스투시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자, 병사 등 계층의 노래는 차스투시카의 주심부분을 차지한다. 차스투시카를 개별적 구술문학 장르로 인식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로서 최초의 차스투시카 채록집은 1903년에 출간되었다; Д. К. Зеленин(1903) *Песни деревенской молодежи,* Вятка.

3. 1930년대: 스탈린 문화 정책과 구술문학

1930년대는 레닌의 뒤를 이어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이 된 스탈린의 정치적 행보가 독재와 자기 우상화의 길로 접어들던 시대였다.[23] 서기장에 오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국가 주도의 폭력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고,[24] 이는 그가 소비에트를 장악하게 된 이후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 민족 정책들과 문화 정책 속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구술문학 정책에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의 문화 정책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것이었고, 1930년대 이후 스탈린 시기 소비에트는 공식적으로 모든 문화 양식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수렴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구술문학의 운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3.1. '라프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부터

1930년대 스탈린의 문학 정책은 그가 라프를 해체하면서부터 비로소 개시되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라프를 해체한 후 스탈린이 전횡을 휘두르며 펼친 문학 정책의 핵심적 이념은 라프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1925년 결성된 라프는 전 소비에트적인 단체로서 1928년에 전(全)연방 프롤레타리아 작가연합연맹(Всесоюз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Ассоциаций пролетарских писателей)이 조직되었을 때까지도 그 내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지침을 문학 속에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라프는 프롤레타리아의 문화혁명을 추구하며 특히 그 계급성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트쿨트의 계승자라 할 수 있지만, 프롤레트쿨트의 이념적 편협성을 비판하며 프롤

23) 로버트 서비스(2007),『스탈린, 강철권력』, 윤길순 옮김, 서울: 교양인, 374쪽. 이미 레닌은 죽기 전에 스탈린 속에서 잠재적 독재자를 발견했다. 스탈린과 정치적 견해로 인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사망하기 전 남긴 정치적 유서 속에서 레닌은 스탈린을 독재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다.

24) 로버트 서비스(2007), 272-293. 스탈린은 이미 혁명의 성공을 위해 공공연하게 국가폭력과 독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향성을 노출시키고 있던 터였다. 그러므로 1930년대 말부터 강화된 스탈린의 공포정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레트쿨트가 포섭하고 있었던 인텔리겐치야 작가층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프롤레트쿨트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문학이데올로기를 지향한 조직이었다. 다시 말해 라프는 프롤레타리아 계층 출신의 작가들이 문학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프롤레트쿨트를 지향하는 듯하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목표 지점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학의 창출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당과 연계된 조직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라프는 스탈린의 정치적 노선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레닌의 사후에 공산당 내부에서 전면적으로 노출되었던 스탈린과 트로츠키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라프가 프롤레타리아 문화 건설을 회의적으로 바라본 트로츠키주의자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점, 나아가 막 서기장이 된 스탈린이 레닌의 정당한 계승자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레닌을 절대화하고 있을 때, 라프가 레닌의 문예 미학적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여 톨스토이의 리얼리즘을 교조적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점[25] 등은 스탈린과 라프 간의 밀착성을 드러내어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26]

라프에 의해 되새겨진 레닌의 톨스토이즘은 유물론적 리얼리즘, 혁명적 심리주의와 같은 개념들로 발전되었고,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상적 표준이 되었다. 이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사회주의 이념의 승리와 같은 당면한 사회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애쓰는 긍정적인 프롤레타리아 영웅의 형상을 문학 속에 그려내되, 주인공의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의 요소, 즉 의식적/자의식적 영혼의 움직임을 모두 드러내어 보여 살아있는 인간형을 그려낼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이전 혁명 직후 문학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물들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시대로의 역사적 발전 과정 자체를 구습의 잔재와 싸우는 인물의 내면을 통해 보여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27] 그러나 이러한 지향성은

---

25) 레닌은 러시아 문학 전통 중에서 특히 톨스토이의 창작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톨스토이에 대한 그의 관심은 다음의 논문 목록들이 증명해준다: “Лев Толстой, как зеркал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1908); “Л. Н. Толстой”(1910); “Л. Н. Толстой и современное рабочее движение”(1910); “Толстой и пролетарская борьба”(1910); “Герои «оговорочки»”(1910); “Л. Н. Толстой и его эпоха”(1911).

26) 로버트 서비스(2007), 391-411. 레닌 사망 직후 스탈린과 겪었던 일련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스탈린은 레닌에 대한 찬양을 시작했다. 당시 스탈린이 레닌과 그 사상을 절대화하며 그를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교주의 위치로 등극시키 위해 행한 정책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자체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었는데, 주인공은 반드시 현실에 대해 회의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심리의 추이를 드러내어야하므로 행동하기보다는 사고하고 관찰하는 형상일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계급성을 지녔으되 긍정적이면서도 확고한 의지로 행동하는 소비에트형 주인공을 구현해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다시 라프의 문학적 원칙에 대한 갈등을 야기했고, 문학을 예술성이 아닌 이념과 정치적 합목적성에 의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라프의 편협성은 반(反)라프적 움직임을 양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행정부는 라프가 오히려 소비에트 작가들 사이의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하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1932년부터 그 개조를 결의하고 라프를 해체시키는 대신 새로운 소련 작가동맹의 결성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다.[28)]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을 창작 정신의 근간으로 하며 사실주의적 예술 창작 원칙을 지칭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20년대 중반 이후 라프 내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회주의적 문학에 대한 사상적 경향들의 종착역이었다. 이 용어는 1932년 소비에트 작가동맹 결성 준비위원회의 의장인 그론스키(И. Гронский)가 『문학신문(«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의 지면을 통해 최초로 사용한 이후 1933년까지 키르포틴(В. Я. Кирпотин)과 함께 지속적으로 선전하였고, 1934년 제1차 전(全)소비에트 작가 회의에서 고리키(М. Горький)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 개개인의 능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한 창작과 행위로 규정되었다.[29)] 고리키는 "작가는 삶의 측면과 창작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더러운 죄악들과 피비린내 나는 의도들의 속물성,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들의 영웅적 노동의 위대함이 모두 드러나는 고아한 관점에 단단히 위치해야하며,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대의

---

27) Грегори Карлтон(2000) "На похоронах живых: теория «живого человека»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героя в раннем соцреализме,"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340-341.

28) 쉬체르비나 외(1986) 『소련현대문학비평』, 이강은 편역, 서울: 한겨레, 329-330쪽. 1932년 4월 공산당위원회는 "문학예술조직의 개조에 대하여(О перестройк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라프의 해체와 새로운 예술 단체결성을 확정짓게 된다(*Партий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1932, № 9, С. 62).

29) Максим Горький(1953b) "О литератур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5: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29-1931)*,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226~238.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여 산파와 매장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30] 즉, 프롤레타리아 개인의 삶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계급성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악을 밝힐 것, 나아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의의를 제시할 것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작가들에게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계급성에 근거한 문학, 나아가 자본주의의 악을 밝히는 것과 같은 과제들은 사회주의적, 혁명적 문학이 지향해야할 방향으로서 이미 기존의 혁명적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작가들의 소명으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작가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혁명적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문학을 요청한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이르러서였다.

프롤레트쿨트는 한때 레닌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어 국민계도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이 본원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구질서에 익숙한 인텔리겐치야 출신의 작가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 계층 출신의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양성이었고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의한 소비에트 문화계의 장악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문학 클럽을 통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거나, 문학 창작을 위한 전통적 모델을 이론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심적인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에트 사회의 개개인에게 소비에트적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문학'관이 그 본질로서 등장한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당대의 공식적 사조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새로운 관념을 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1932년 10월 26일 고리키의 집에서 열린 당대 주요작가들과의 만남에서 스탈린은 작가를 지칭하여 인간의 세계관을 조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인간 영혼의 기술자(Писатель – инженер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시기가 라프를 해체하고 문학예술 조직의 재편을 결의한 직후인 만큼 이는 이후 새로운 문학관의 형성에 주요한 지침대가 되었다.[31] 그러나 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프롤레타리아 작가 계층 및 당대 문화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

30) Максим Горький(1953c) "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реализм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7: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33-1936)*,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5-11.

31) Вадим Серов(2003) "Инженеры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 *Энциклопедичечский словарь крылатых слов и выражений*,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ОКИД-Пресс, С. 56. 스탈린이 사용함으로써 유명해진 이 표현은 원래 1929년 유리 올레샤의 작품에서 따온 것이다.

인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리키는 「문학 및 그 외에 대하여(О литературе и прочем)(1931)」에서 동시대 문학 비평의 올바른 길을 지시하면서 "역사의 동반자로서 문학의 기능과 사회적 습속에 대한 문학의 비판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문화 교육적 의미가 동시대 비평에 의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글은 이후 고리키의 문학적 경향성을 드러내어주는데, 그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적인 성장 외에도 노동자 계층의 감성적이고 내적인 에너지의 성장 역시 이루어져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혁명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대중들과 마주한 작가와 비평가는 서로 힘을 모아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위한 길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2] 특히 그는 과거에는 무지하고 게을렀던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서서히 문화 혁명의 주체로 나서면서 당대 문학과 언론을 포함한 예술의 전분야로 뛰어들고 있으며, 머지않아 곧 예술에서 집단 창작의 형태가 창조될 것이라고 예언한다.[33] 그가 이처럼 노동자 대중의 집단적 창작 형태를 언급한 것은 혁명에 봉사하는 예술을 위해서는 구시대의 개별화된 인텔리겐치야 문예인들을 파멸시켰던 분열을 지양하고 작가와 비평가가 함께 공동의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맥을 배제하고서라도 이 글에는 '노동자 대중(рабочая масса)'이나 '집단 창작의 형태(какая-то форма коллектив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등의 표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예술의 핵심으로서의 집단성의 범주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지식인-개인들(интеллигенты-индивидуалисты)'과 같은 표현 속에 드러난 개인성의 범주와 명백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리키는 무의미한 개념들이 난무한 언어는 아무리 명확하고 간결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지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문학의 언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34] 이때

32) Максим Горький(1931) "О литературе и прочем," *Правда и Известия ЦИК СССР и ВЦИК*, номер 157 от 9 июня.

33) "우리의 노동자 대중, 우리의 새롭고 자유로운 일꾼들이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창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예술에서 집단 창작 형식이 창조 전야에 있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현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34) 정확한 문맥은 다음과 같다: "이로부터 명백해진다. 섬세하게 언어를 공부할 필요성 외에도, 잘 연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추한 단어들로 더럽혀진 문학어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적확하고도 표현적인 단어들을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그 외에도 작가는 과거 역사, 동시대 사회 현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동시에 산파와 장의사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존의 문학어는 온갖 추하고 뒤틀린 단어들로 더럽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연관된 이러한 고리키의 논의는 언어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상적 언어의 자질은 곧 이상적 문학의 자질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은 개인 창작으로부터 서서히 이행하게 될 집단적 창작, 교육적이고도 교화적인 문학, 지적 역사로 인해 복잡하게 오염되지 않은 명쾌하고 단순한 언어의 문학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프롤레트쿨트와 라프에서 핵심개념이었던 문화생산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밀려나고, 노동자 대중으로 지칭되는 집단성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성의 개념은 이후 스탈린 시대에 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로 기능하게 된다.

3.2. 고리키와 구술문학의 복권

집단성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사회주의의 이상적 문학상은 곧 민중의 문학인 구술문학과 직결되었다. 즉, 이는 고리키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바로 그 회의석상에서 구술문학을 민중의 문학으로 규정하며 기록문학과 동등한 위치로 복권시킨 역사적 정황 속에서도 드러난다. 1934년 제1차 전(全)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고리키는 구술문학이 유물론적 사고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인들의 사회적 삶의 현상, 노동 과정에 의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켜진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고대의 노동자들이 일을 경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여러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하는 등,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꼈던 필요성과 소망이 신화와 민담으로 구현된 것이므로, 구술문학 속에서 이상화되고 신비화된 인간의 능력이나 신의 형상은 모두 실제적인 리얼리즘의 계기에 의한 것이라 언급한다. 주술과 주문도 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 느껴졌던 자연현상과 자연력에 대해 언어의 힘을 빌려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인데, 특히 언어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노동과정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의 실제적인 유용성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설명된다고 말한다.[35]

는 소명을 지녔다."(Максим Горький 1953c: 5)

35) Максим Горький(1953a) "Доклад на Первом всесоюзном съезде советских пи-

이처럼 구술문학이 실제적 삶에 의해 배태된 노동 계층의 세계인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리키는 그 이전 라프와 레프 시대에 구술문학을 신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혹은 봉건시대와 궁정문화의 산물로서 이해하던 관념을 모두 깨뜨렸다. 또한 역사적으로 원시시대 노동 계층의 유물론적 상태를 반영해주는 구술문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서 지배계층과 그 문화를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 구술문학의 창작자들은 그들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결코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데, 간혹 온순하고 인내하는 순교자들을 창조해내어 노예의 이성을 마비시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위로해왔던 기독교 교회의 영향 탓에 구술문학에는 때로 지상에서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 같은 부정적인 색채가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술문학은 염세적이고 개인적인 봉건적 부르주아 문학에 대립되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문학으로서, 부르주아 지배계층에 의해 은폐되어온 구술문학의 진정한 의미, 그 속에 내재한 노동자들의 세계관을 발견하고 캐내는 것이 소비에트의 과제가 된 것이다. 구술문학은 이 시대 문예학의 공식적 논의 속으로 끌어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구술문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 소비에트 현실 속에서 구술문학이 새롭게 존재하게 만든 고리키의 행위는 신화시학적 창조행위에 비견될 수 있다.[36] 이제 구술문학은 매우 당연하게도 지배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도 굳건하게 민중의 삶을 반영해온 민중의 창작물로 격상되었고, 민중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고리키는 구술문학이 기록문학에 부단하게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인류 문화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도 조화로운 형상들을 창조해내었다고 말하여 구술문학이 기록문학보다 훨씬 더 생생하며 우월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순간, 구술문학은 소비에트가 그토록 애써왔던 노동계층이 주축이 된 진정한 노동자 문학의 대표적 사례인 동시에, 인류가 창조해온 문학적 전통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학으로서 소비에트가 추구해야할 이상적 문학, 즉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직접적 선조이자 그 원형이 되었다. 그러

сателей 17 августа 1934 год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7: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33-1936)*,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288-322.

36) Урсула Юстус(2000)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ай: соцреализм и фольклор,"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71-79.

므로 구술문학의 특성으로 주목된 민중성, 언어적 단순성, 명확성, 창작의 집단성, 긍정성 등은 고스란히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원칙들로 반영되었다.

고리키에 의해 이루어진 구술문학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현재에는 이미 정치에 의해 수단화된 문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당시에는 문예미학적 논의에 의한 귀결점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리키의 구술문학에 대한 재평가의 출발점이 문학을 유물론적인 토대의 관점에서 평가하던 레닌의 사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결코 문학적 사유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 계산된 정책적 고려라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고리키의 구술문학 복권을 통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체적인 강령이 정치적 강령을 문학화한 것이 아니라 문예 미학적 고려의 결과라는 맥락을 형성했다는 것이다.[37] 실제로 강압적인 정치적 의도를 자연스러움을 가장하기 위한 전략을 통해 은폐하는 것은 스탈린 시대의 문화 정책에서 매우 흔히 반복된 것으로 관찰된다.[38] 이는 문화를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던 스탈린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그가 수많은 문화 엘리트들과 교류했을 뿐 아니라, 특히 당대 서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고리키를 스탈린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자 했다는 관찰은 이를 뒷받침한다.[39] 더불어 이후 구술문학이 스탈린의 문화 정책의 목록 속에 기입된 채, 이데올로기적 가공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37) Урсула Юстус(2000), 71.

38) 스탈린 시대에 대한 연구들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국가정책의 실현, 즉 정치적 의도나 정책을 문화적 움직임 속에 은폐시켜 작동시키려는 스탈린 시대의 문화 정책의 전모를 흥미롭게 드러내어주고 있다; Эрик Найман(2002) “Чубаровское дело: Групповое изнасилование и утопическое желание,” *Советское богатство,*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52-82; Марк Липовецкий (2002) “«Тараканище» Сталина,” *Советское богатство*,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220-240.

39) 로버트 서비스(2007), 519-529. 익히 알려져 있듯, 레닌 사후 스탈린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민족주의나 종교,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30년대 초부터 그는 이전과 달리 몇몇 지식인들과 교류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고리키였다. 로버트 서비스에 따르면, 스탈린은 문학가로서의 고리키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서구에서 이미 유명했던 고리키를 통해 소비에트를 대외적으로 빛내는 장식으로 써먹고자 했고, 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고리키가 작가동맹 결성 등에 동조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스탈린이 당시 소비에트의 예술을 정치적 통제 아래 놓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4. 민중성의 유령: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과 그 반동

고리키에 의한 재평가 후 소비에트의 공식적 문화 정책의 주요한 키워드가 된 구술문학에 관한 당과 정권 차원의 지원은 가시화되었다. 우선 1933년부터 『문학 신문』은 가장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구술문학 텍스트 지원에 나섰다. 1925년부터 30년대까지 지역별로 조직화되어있던 농촌 중앙 예술 센터(Дом искусства в деревне)를 1936년부터는 민중 예술 센터(Дом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로 전환하여 집단예술창작을 독려하고 민중예술을 수집, 출판하여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부르주아적 이념을 지닌 작품들과의 전쟁을 특별히 강조한 민중 예술 수집과 채록을 위한 지침 교본들도 출판되었다.[40] 구술문학이 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들은 1936년부터 더욱 가속화되어 스탈린이 사망하던 1953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41] 그 과정에서 민족별, 지역별 구술문학 텍스트가 광범위하게 채록되어 출판되었고, 이름난 전승자, 가수들이 탄생하였다.[42] 특히 당기관지 『프라브다』가 수집한 텍스트들의 모음집으로 1937년 출판된 『소비에트연방 제 민중들의 창작(Творчество народов СССР)』은 이후 구술문학의 채록과 출판에 있어 경계석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43] 여기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35개 민족의 숱한 가수들, 전승

---

40) П. Г. Богатырёв(ред.)(1954b) “Роль решений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звитии сове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С. 36-38.

41) Frank J. Miller(1990) *Folklore for Stalin,* New York: M. E. Sharpe, p. 7.

42) 민족별, 지역별로 구술문학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스탈린을 통해 표현되었다. 스탈린은 내용상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이면서 형식상으로는 민족적인 문학이 사회주의가 지향해야할 전(全)인류적 문화라고 규정했고, 이는 각 민족별, 지역별 문화를 독려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통합적 지향성 아래에 통제하는 전제가 되었다. П. Г. Богатырёв(ред.)(1954a) “Ленин и Сталин о народном поэт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С. 35.

43) А. М. Горький, Л. З. Мехлис и А. И. Стецкий(ред.)(1937) *Творчество народов СССР.* М.: Правда. 이 모음집을 『소비에트연방 제 민족 창작』이 아니라 『소

자들로부터 채록된 텍스트들이 전승자의 이름과 나이, 채록시기와 지역 등의 정보와 함께 기록되어 레닌, 스탈린, 내전, 붉은 군대, 소비에트 국가 등의 테마별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제별 목록 속에 사회적 사건들이 아닌 동시대적 인물인 레닌과 스탈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특정 시인의 작품이지만 거리에서 노래로 불리어지는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텍스트의 서두에는 노래, 민담, 브일리나, 차스투시카와 같이 장르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다분히 편의적 분류로 여겨진다. 또한 이 책이 명백히 구술문학의 채록 텍스트들의 모음집임에도 불구하고 '구술문학(устное творчество)'이나 '민속문학(фольклор)'이 아닌, 민중들의 창작으로 표제화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책으로 인해 레닌과 스탈린이 구술문학의 주요 테마로서 공식화되었고, 구술문학과 민중문학은 어느새 동의어가 되었다. 또한 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으나 거리에서 회자되는 노래들이 '민중문학'이라는 개념 아래 부지불식간에 구술문학의 범주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 책이 지니는 이러한 의의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후 출판된 채록집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44] 한편, 구술문학의 채록과정에서 드러난 전승자들이 이들 출판물들 속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몇몇 전승자들은 유명세를 구가하였는데, 심지어는 마치 기록문학에서의 작가인 듯 전승자의 이름을 내건 채록 모음집들이 출판되기도 하였다.[45] 그러나 문제는 한 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구술텍스트를 출판하게 된 전승자들이 어느덧 인쇄된 출판물 속에 고착된 구술 텍스트의 작가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국면은 기록문학과 구술문학의 경계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구술문학

비에트연방 제 민중들의 창작』으로 번역한 것은 이 모음집 속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된 민중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44) *Ленин и Сталин в поэзии народов СССР*(1938)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Ю. М. Соколов(ред.)(1939) *Самое дорогое. Сталин в народном эпосе,*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45) 특정 전승자의 구술 텍스트의 모음집들의 사례: В. Попов(ред.)(1939) *Новины Марфы Семеновны Крюковой,* М.: Гослитиздат; А. М. Астахова(ред.)(1940) *Былины П. И. Рябинина-Андреева,* Петрозаводск: Каргоиздат. 한편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채록된 텍스트들의 모음집의 경우 전승자별로 구분하여 텍스트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А. М. Астахова(ред.)(1941) *Былины пудожского края,* Петрозаводск: Госиздат, 1941.

의 장르구분 및 규정상의 혼란, 구술문학과 기록문학 간의 경계의 불명확성, 레닌과 스탈린 등 동시대적 현실을 구술문학의 주된 주제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 이 시대에 출판된 채록 모음집들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이후 구술문학 연구 및 비평가들의 과제가 되었다.

4.1.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 비평들.

스탈린 시기의 구술문학 정책들은 그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일련의 비평들로 뒷받침되어졌다. 특히 1930년대 후반, 1940년대에 작성된 소비에트 구술문학 비평들은 이 시기 구술문학 정책의 방향성을 선전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스탈린 시기 구술문학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낸 1937년의 『소비에트연방 제 민중들의 창작』을 이론적으로 지지할 목적으로 1938년 발표하고 1941년 『소비에트 구술문학(Советский фольклор)』에 게재한 소콜로프(Ю. М. Соколов)의 「소비에트 민속 문학의 발전의 기본 노선들(Основные линии развития сове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46]은 그러한 비평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서두에서 소비에트 민속문학이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투쟁과 공산주의 이념의 선동 선전을 위한 예술적 도구라고 전제하고, 노동 대중으로서의 민중의 것인 구술시가(устная поэзия)가 동시대 삶의 모든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교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리키로부터 비롯된 구술문학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요청의 목록들을 반복한다. 우선 그는 과거를 알수록 현재를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고리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구술문학의 과거와 현재적 상황 간의 연계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소비에트의 현재적 상태에 국한된 자신의 논의를 정당화하는데 성공한다. 더불어 그는 사회주의적 삶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양식의 소비에트 민속문학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스탈린의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구술문학의 장르들이 유물론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그가 서두에서 구술문학 비평의 권위로 자리잡은 레닌이나 고리키에 대한 인용 혹은 차용을 통해 자기 논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46) Ю. М. Соколов(1941) “Основные линии развития сове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Советский фольклор*, № 7, М., С. 38-53.

자신의 비평이 1930년대 이루어진 구술문학에 대한 재평가의 맥락 에 처해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길 수 있다.

그는 당대 소비에트 구술문학의 발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하는데, 우선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전투적 수단이 되었던 종교시(духовные стихи)나 종교전설(легенда)처럼 구시대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장르들은 토대를 잃고 퇴화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장르들 중에서도 비교적 유연하여 소비에트의 새로운 사회 이념을 담아내기에도 용이한 장르들은 그대로 살아남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당대의 구술문학이 새로운 장르로 변모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며, 따라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예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라는 인식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혁명 전 구시대 민속문학의 전형적인 양식 속에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은 일련의 민중가요들의 경우 비록 그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마치 역사적 문서처럼 정확하게 민중의 심리를 반영하는 만큼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그가 구술문학 텍스트를 평가하는데 있어 예술적 조화나 체계와 같은 미학적 측면보다는 창작주체와 주제적 차원의 계급성, 민중성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술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민중성이 얼마나 강력한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소비에트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민중들이 자의적으로 변형시켜 노래함으로써 만들어진 생성된 대중가요(массовая песня)들에 대한 소콜로프의 논의 속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민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비평가'라는 고리키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민중들에 의해 텍스트가 변형된 양상을 통해 민중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낯설게 여겼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고백한 작가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에 의해 기록 텍스트가 잘못 이해된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비평가이자 향유자'인 민중의 이해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다. 또한 구술에 의한 직접적인 전달이라는 민속문학의 전통적 존재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록텍스트에 토대를 둔 민중들의 노래를 모두 구술문학의 범주로 당연한 듯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민중성의 개념이 구술문학의 존재론적 특성에 선행할 만큼 핵심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민중성의 편협한 개념과 유물론적 토대에 대한 강조는 차스투시카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차스투시카에 부농에 대한 집단농장의 승리가 기

록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드는데, 스탈린 시대의 가장 폭력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부농과의 전쟁을 차스투시카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의 사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매우 정치-이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부농들과의 전쟁 선포 후 부농들이 익명으로 창작한 차스투시카가 이념적 선동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자, 이에 맞서기 위해 콤소몰 조직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차스투시카를 창작하여 유포한 것을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차스투시카에 부농에 대한 집단 농장의 승리가 드러나 있다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맥락상 민중의 범주에는 부농이 제외되어 있으며, 둘째, 이념의 전쟁터에서 구술문학이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념적 쟁취를 위해서라면 국가기관에 의한 의도적인 텍스트의 창작과 유포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구술문학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인 민중성은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의미에서의 민중성이므로, 당연하게도 부농이 창작한 차스투시카는 소비에트 사회의 구술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쟁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중의 삶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그 최초의 근원을 알기가 힘든 구술문학의 본원적 특성을 배제하고 이념의 수단으로서의 텍스트를 그 범주 속에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은 구술문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소비에트에 이념적으로 충실한 자들만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만든 여하한 텍스트를 모두 구술문학으로 받아들일 것, 나아가 국가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텍스트마저도 구술문학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소콜로프의 이러한 비평은 스탈린 시대 소위 구술문학이라 칭해진 텍스트들의 정체, 나아가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펼쳐진 문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후에 전개되는 소콜로프의 논의 역시 앞서 제기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소비에트의 구술문학이 의도적으로 선동적인 것조차도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바로 대중의 감정과 상태가 그와 같은 선동적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대중이 느끼는 감정을 실체적으로 전달하며 유포하고 선동하는 시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시가이며, 선동성의 여부가 시성(詩性)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구술문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 소콜로프는 실제 당시 소비에트에서 국가적 채록사업을 통해 현격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연구자의 사례를 언급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사례로 그는 시델니코프

(В. М. Сидельников)가 채록한 레닌에 대한 스카즈(сказ)들에 주목하는데, 그 중 「단추(Пуговка)」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가 간결하지만 매우 함축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 스카즈가 구술문학인지 아닌지와 같은 '스콜라적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용의 이념성이 중요할 뿐, 그 구조적, 미적 문제, 장르적 정체성은 더 이상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 연구가에게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변화한 소비에트적 질서와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일어난 구술문학의 변화를 요약하면서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전통 브일리나와 매우 닮았으나 내용 및 형식적 측면에서 새로운 특성을 띄는 노비나(новина) 장르 경우, 노비나 전승자의 창작 과정에 기록문학의 작가가 개입하곤 하였는데, 소콜로프는 이 역시 정당하다고 평가한다.[47] 실제로 스탈린 시대에 구술문학 채록 과정에서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는 전승자들로 하여금 구술문학연구자 혹은 시인-작가와 밀접한 공동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브일리나의 경우, 전승자 크류코바(М. С. Крюкова)와 시인 포포프(В. А. Попов)를, 전승자 랴비닌-안드레예프(П. И. Рябинин-Андреев)와 구술문학연구자인 바자노프(В. Г. Базанов)를, 민담의 경우 전승자 골룹코바(М. Р. Голубкова)를 구술문학연구자이자 작가인 레온티예프(Н. П. Леонтьев)를 함께 작업하게 하였으며, 이들 시인, 연구자들은 각 전승자들로부터 채록된 텍스트 모음집의 최종편집자가 되었다. 특히 이들 기록문화의 대표자들이 전승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유도했고, 심지어 채록된 텍스트에서 자신과 전승자의 역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작업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48] 이러한 정황은 명백히 허위구술문학을 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콜로프는 전통적인 전승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창작이 지닌 의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들에게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창작을 위해서라면 민중문학의 전승자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은 당위적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작을 논할 수 없으며, 오로지 여러 기록선집들에서 발췌한 단편들을 짜깁기하여 창작한 것과 같은 종류의 텍스트에 대해서만 구술문학에

47) Ю. М. Соколов(1941a), 49.

48) 예를 들어 포포프는 마르파 크류코바가 스탈린에 대한 구술텍스트를 노래할 수 있도록 그녀를 스탈린의 고향으로 데리고 갔다.

서의 위작을 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9]

이처럼 계급성과 이념성에 기초한 편협한 민중성의 개념으로부터, 유물론적 토대를 기준으로 하여 민중의 심리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민중의 입으로 회자되는 텍스트이면 모두 민중문학, 즉 구술문학으로 분류가능하다는 인식, 나아가 기록문학 및 국가/사회적 개입 등 외적 요소들의 구술문학에 대한 영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스탈린 시대의 국가주도적 구술문학 정책을 옹호하는 소콜로프의 비평은 스탈린 시대에 민중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이에 기초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어진 구술문학의 서글픈 운명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콜로프에 의해 옹호된 일련의 문제적 지점들은 이후 맹렬한 쟁점으로 다시 표면화되어 비판받게 된다.[50]

4.2. 반동의 시대: 1953년~1955년 구술문학 비평

이처럼 스탈린 시대 문화 정책 속에서 구술문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이념의 화려한 광고판이 되었고, 그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베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지지세력의 이면에 수많은 반동적 세력을 짓누르며 성립된 억압적이고도 허구적 상태였다는 사실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즉각적으로 쇄도한 구술문학에 대한 맹렬한 논쟁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1953년 바흐틴(В. С. Бахтин)이 『소비에트 민족지학(*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에 발표한 논문 「민속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나긴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51] 이 논문은 본래 193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간 지속된 소비에트의 민중 시문학 연구를 집대성하기 위해 1952년 발간된 『소

---

49) 이 시대의 위작 개념은 다음을 보라. П. Керженец(1937)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народного прошлого,* М.-Л.: Искусство, С. 5-15.

50) Н. Леонтьев(1948) “Затылком к будущему,” *Новый мир*, № 9, М., С. 259-266.

51) В. С. Бахтин(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В связи с теоретическими положениями книги «Оче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2, М., С. 152-162; А. М. Астахова, И. П. Дмитраков и А. Н. Лазанова(ред.)(1952) *Оче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М.-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비에트 민중시가 창작 개설(Оче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에 대한 서평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소비에트 민중시가 창작 개설』 자체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소비에트 민중시가 창작 개설』이 스탈린 시대의 민중시가 채록과 연구의 결실인 만큼 그 비평의 날은 스탈린 집권기 구술문학 정책과 학계를 향해 있다. 당시 잡지의 편집진은 바흐친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동시대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자들의 동참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이후 약 2년 간 지속되었다.

바흐친의 논문은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 정책에 있어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선 그는 구술문학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민중문학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1937년 출판된 『소비에트연방 제 민중들의 창작』 이후 굳어져 구술문학에 대한 모든 논의를 민중성의 개념 속에서 소멸시키는 핵심적 개념으로서의 '민중문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바흐친은 상대적으로 구술문학을 정의하고자 시도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구술문학과 기록문학 간의 차별성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그는 소비에트의 문학과 구술문학의 차이가 내용이나 창작방법이 아니라, 작품이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텍스트 창작 후에 이후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정되고 연마되는 과정을 거치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확정성, 변이성이 구술문학의 특성이라 규정한다. 이때 이전시대에 구술문학의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된 집단성의 개념을 구술문학의 근본적 특성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비에트의 구술문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내용층위에서의 민중성의 개념을 배제하고 구술문학 그 자체의 형식적, 창작 방법상의 특성을 구술문학을 위한 정의의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반동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형식성에 대한 관심은 구술문학과 기록문학과의 변별성을 찾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앞서 지적된 특성들이 창작 후에 지면에 고착되어 영원불변의 형태를 갖는 기록문학과 다른 구술문학만의 변별적 특성이며, 집단창작인 구술문학을 개별적 창작과 구별하는 지점이라 언급한다. 아울러 그는 구술문학의 전승자 개인의 이름이 내걸린 텍스트들을 구술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는데, 이는 민담이나 브일리나 분야에서 전승자 개인의 이름을 통해 구술문학을 선전해온 스탈린시대의 구술문학 정책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었다. 즉, 전승자 개인의 이름으로 출판되어 널리 알려진, 그것도 문학텍스트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거나 혹은 공동작업의 형태를 통해 '창작'된 작품을 구술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술문학 창작에 있어 국가적 의도의 개입을 포함한 구술문학 외적 요소의 영향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바흐친의 논문이 실린 『소비에트 민족지학』지에는 그 첫 번째 답변인 슈베도바(Л. Шведова)의 논문이 함께 게재되었다.[52] 슈베도바는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계가 구술문학의 채록과 출판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것의 분류와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도태하였음을 지적하며 바흐친에 동의한다. 그러나 슈베도바는 소비에트의 변모한 민중의 범주가 구술문학의 변화를 견인하였다는 점, 나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술문학의 파급이 가능해짐으로써 구술문학의 존재 및 전달 형태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록문학과 구술문학 간의 궁극적인 차이가 많은 부분 상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탈린 시대에 행해진 주도적 비평을 일부 반복한다. 특히 그는 그 실제적인 사례로서 특정작가의 텍스트가 민중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사가 되어 민중 속에서 널리 불리게 되는 경우를 언급하는데, 이 역시 스탈린 시대의 비평들에서 논의의 타당성을 위해 흔히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스탈린시대의 기록문학에 적용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양상이 구술문학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기록문학과 구술문학 간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구술문학을 이상적 원형으로 삼아 탄생하였다는 맥락을 간과한 현상적 차원에 그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슈베도바의 비평은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계의 관행 및 스탈린시대의 구술문학 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1953년 『소비에트 민족지학』의 제3호에 실린 네차예프(А. Нечаев)와 르이바코바(Н. Рыбакова)의 비평에서는 개별 전승자에 의해 창작된 후 인쇄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기록문학적인 방식으로 소통되고 알려진 작품들을 기록문학 작품으로 규정한 바흐친의 견해에 동의한다.[53] 이들은 구술문학이 기록문학과는 다른 존재방식과 법칙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진정한 민속문학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제기한다. 나아가 전통적 브일리나의 양식을 베낀 후 소비에트적 어휘들을 일부 차용하여 기계적으로 창작한 소비

52) Л. Шведова(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2, М., С. 88-94.

53) А. Нечаев и Н. Рыбакова(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По поводу статьи В. С. Бахтин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3, М., С. 134-141.

에트의 서사시를 비난하며 사회적 상황, 역사적 변화에 따라 생성과 발전, 소멸을 거듭하는 문학 장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소비에트 민중시가 창작 개설』의 편집진들을 비판한다. 다소 의도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조심스럽게 네차예프와 르이바코바는 이들 편집진들을 향해서만 제한적인 비판을 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방식 및 형식성에 근거를 둔 구술문학 정의와 기록문학과의 경계, 문학텍스트의 예술성과 장르 발전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기초한 이들의 비평은 소비에트적 구술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그 자체라 간주할 수 있다.

같은 해 제4호에 실린 「민중 창작의 특성에 대하여(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라는 논문에서 아니킨(В. П. Аникин)은 구술문학 발생의 계기에 있어 집단성을 강조하여, 민중의 집단 창작 과정을 문학에서의 개별 작가에 의한 창작 과정과 유사하게 이해한 소콜로프를 비롯한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자들을 비판한다.[54]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구술문학을 개인에 의해 창작되었으나 민중들에 의해 파괴된 결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 부르주아학문의 이론으로서, 체르느이셉스키, 벨린스키, 도브롤류보프, 고리키를 거쳐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의 사상가들에 의해 이미 부정되어온 것이라 지적한다. 다만 구술문학의 집단 창작과정에서 개인은 없어서는 안 될 고리이자,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반영하여 구술문학을 새롭게 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창작자의 일원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구술문학은 그 어느 전승자로부터 채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닌 집단의 것이며, 구술문학에 존재하는 문학적 전통은 전승자 자신이 취사선택할 수 없는 모든 전승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집단적 체계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니킨은 앞선 논쟁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승자 개인의 이름과 더불어 알려진 작품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전승자 개인의 이름으로 채록되어 남겨진 작품 역시 집단창작의 결실로 보아야한다는 뜻을 드러내며 그러한 논쟁 속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1954년 뒤늦게 이 논쟁에 참여한 치스토프(К. В. Чистов)는 소비에트 시기의 구술문학 채록 및 연구를 집대성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민중시가 창작 개설』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편집진들이 민중시문학, 구술문학 등 범람하던 용어들과 그 개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을 뿐 아니

54) В. П. Аникин(1953) “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4, М., С. 80-87; Ю. М. Соколов(1941b), 13.

라 소비에트 민중시의 변화와 발전사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바흐친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55] 그러나 그는 바흐친의 핵심적 개념인 '구술문학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변이성'을 부정한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민중 창작 개념을 구술문학의 형식적 특성에 선행시킴으로써 앞서 제시된 구술문학의 새로운 조망으로부터 퇴보한 관점을 드러낸다. 바흐친의 논의가 구술문학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시도함으로써 그것이 과거 민중창작이라는 모호한 개념과의 분별을 꾀한 것이었다면, 치스토프의 비평은 기존의 민중창작의 개념의 틀 속에서 바흐친이 구술문학의 본질로 제시한 특성들의 무용성을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여전히 민중성의 개념을 구술문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에트 민족지학』에서 진행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구술문학 논쟁은 뒤를 이어 『신세계(Новый мир)』의 지면을 빌어 지속되었다.[56] 특히 이 논쟁은 유사 구술문학의 범주의 문제를 제기한 레온티예프로부터 시작되었다. 「마법성과 샤머니즘(Волхвование и шаманизм)」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소비에트의 사회분화발전 과정에 수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혁명 이전과 같이 순수한 민중들의 문학과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문학들 간의 간극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소비에트의 구술문학은 혁명전 구술문학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따라서 혁명 전 구술문학을 기준으로 고답적 형태를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임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레온티예프가 1939년 골룹코바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페초라지역의 구술문학 채록집을 출간했던 만큼 그 스스로 구술문학의 전승자들에게 문헌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 열렬한 옹호자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7] 그러나 레온티예프는 민중성을 내용으로 하는 텍스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술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했다. 1948년의 논문에서 그는 채록과정에서 구술문학의 변화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답적인 혁명전 구술문학의 형태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을 문제시하며, 페초라 지역의 구술문학 채록집인 『페초라 지역의 시가(Поэзия Печоры)』를 비판한다.[58] 특히 그는 채록탐

---

55) К. В. Чистов(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4, М., С. 105-111.

56) *Новый мир*(1954) № 8, М., С. 203-238.

57) В. М. Сидельников(ред.)(1943) *Печорский фольклор*, Архангельск: Архангельское област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사를 이끌었고 채록집의 편집인이었던 바자노프를 겨냥하여 “장례, 혼례, 병사의 옛 애가들이 이미 자신의 시대를 마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바자노프는 콜호즈의 여인들에게 동시대적 주제로 애가들을 즉흥창작하게 하였고, 시의성을 상실한 이들 장르의 현대적 형태들을 분류했다”고 비난한다. 이때 레온티예프는 바자노프가 콜호즈의 여인들에게 동시대적 주제로 애가들을 즉흥창작하게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일련의 애가들이 이미 시대에 뒤쳐진 낡은 형식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그는 여전히 국가주도의 구술문학 창작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치체로프(В. Чичеров)는 레온티예프의 뒤를 이어 소비에트 시대의 새로운 구술문학을 혁명 전 사회의 낡은 구술문학의 형식적 틀 속에서 담아내고자 한 구술문학의 연구경향을, 퇴치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적 이론들의 잔재로 혹평하며, 민중시가창작의 역사적 발전의 법칙성을 고려한 학문을 촉구한다.[59] 특히 그는 문학과 구술문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술문학의 전승자들이 전통적인 구술문학의 형식에 따라 양식화하여 새로운 개별적 작품들을 창작한 것이라면, 그것이 옛 양식의 인공적 재생, 양식화인 이상 집단창작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다.

푸틸로프(Б. Путилов)는 1954년 『즈베즈다(Звезда)』에 발표한 논문 「현대 민중시 창작에 대하여(О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60]에서 구술문학은 전승자를 통해 전해지며 전승자들은 전통적 형상, 모티브들, 시적 기법들의 틀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변화를 반영한 즉흥성을 더해 발전시키지만, 20세기 이후 소비에트의 급변하는 현실을 담기에는 전통성의 측면이 이러한 새로운 이념의 표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1930년대 이후 소비에트 구술문학의 열기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규모의 구술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나, 당시에는 간과되었던 이들 작품들의 문제점들 – 즉, 새로운 소비에트적 내용과 이를 담기에는 부족한 옛 형식 사이에서 야기되는 부조화, 의도적으로 고풍스러움을 가장한 인쇄 등 – 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전승자들

58) Николай Леонтьев(1948), 249-266.

59) В. Чичеров(1954)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овый мир,* № 8, М., С. 203-216.

60) Б. Путилов(1954) “О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 *Звезда,* № 2(февраль), М.-Л., С. 144-151.

에게 고풍스러움, 전통성의 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술문학 연구가들을 붙여 공동작업 하게 한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가들의 잘못이며, 이렇게 창작된 작품들은 민중들이 향유하는 구술문학의 목록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채, 마치 시인 개인의 창작과 같이 책의 형태로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구술문학 상황을 스탈린시대에 통용된 전통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묘사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객관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서히 구술문학의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탈린 사후 1953~1955년간 벌어진 일련의 논쟁들은 민중성을 구술문학의 기준으로 인식한 나머지 야기된 구술문학과 민중문학의 개념적 혼용, 그로 인해 기록문학과 구술문학, 그리고 개별 창작과 집단 창작 간의 모호해진 경계성, 나아가 국가주도의 구술문학 '창작'의 정당성 등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 정책이 드러내는 대표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스탈린 시대의 왜곡된 구술문학 정책에 대한 비판, 나아가 본질적인 구술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들의 논쟁이 반성적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구술문학 연구자들의 자각은 1960년대 들어 다시 한 번 구술문학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5. 그 후: 구술문학 본질의 환원을 향하여

1960년대 이후에 이뤄진 논쟁은 여전히 앞선 시대의 중심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탈린 사망 직후 1953~55년의 비평들이 스탈린 시대의 문화정책의 문제점들을 둘러싸고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스탈린 시대의 문화정책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던 1960년대의 비평들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흑백논리들이 서서히 자리를 감추고, 대신 변증법적이며 창조적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문제인 창작에 있어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문제가 1960년대에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1964년『문학의 제 문제들(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에 게재된「개인적인 것, 혹은 집단적인

것(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или коллективное)」에서 치스토프는 구술문학이 모두 집단적인 것, 문학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는 구분을 거부하고, 구술문학에는 이 두 계기들 간의 변증법적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짓는다.[61] 구술문학과 기록문학에서 각각 전승자와 청자, 혹은 작가와 독자 간의 공감이 중요한 만큼, 집단성이 구술문학을, 개인성이 기록문학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자질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실제 텍스트를 질료로 역사적 관점에서 개인성과 집단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역사와 현실, 개인성과 집단성의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구술문학의 본질적인 특성을 찾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스탈린 시대의 이분법적 논의를 극복한 당대의 발전적인 관점을 대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1년 아즈벨레프(С. Н. Азбелев)의 논문 「'구술문학' 개념의 정의에 부쳐(К определению понятия «Фолькло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는 스탈린 시대의 구술문학 정책의 문제들을 단 한 순간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내린 구술문학의 정의는 스탈린 시대에 선전된 구술문학들을 매우 간결하게 허위구술문학, 또는 구술문학 외적 현상으로 규정하게 한다.[62] 아즈벨레프는 구술문학이 민중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 민중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문학적 사실(존재)이 된다는 보가트이료프(П. Г. Богатырев)의 정의[63]로부터 출발하여 구술문학은 반드시 인간의 기억을 통해 기억 속에서 재생되고 전달되며, 설령 그 어떠한 물질적, 기술적 방법을 통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것은 그저 그것이 문학적 사실이 되는 순간에 생산해낸 결과물로 인식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구술문학은 문학이 검열되던 시대에 그 익명성과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해 검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적 이데올로기에 대립적인 것들을 훨씬 더 확연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념적 투쟁을 위해 콤소몰 조직이 부농들의 차스투시카에 반해 자신들의 차스투시카를 창작한 것, 스탈린 등극부터 독재를 거쳐 사망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텍스트들, 시인과 학자들의 개입을 통해 완성된 전

61) К. Чистов(1964)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или коллективное,"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 6, М., С. 122-126.

62) С. Н. Азбелев(1974) "К определению понятия «Фольклор»,"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 3, Л., С. 94-113.

63) П. Г. Богатырев(1971) "Фольклор как особая форма творчества,"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скусство», С. 373.

승자들의 텍스트들은 모두 허위구술문학의 범주로, 전승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출판되거나 녹음되어 전 러시아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구술문학 외적 범주로 날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즈벨레프의 비평은 전개상의 논리성에 있어서도 매우 주도면밀하지만, 그것보다는 1960년에 이어 1970년대 소비에트 구술문학 연구는 스탈린 시대가 강압적으로 구술문학에 덧입힌 민중성과 집단성의 유령을 자유롭게 벗어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와서야 소비에트의 구술문학은 본래의 가치를 되찾게 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서비스, 로버트(2007)『스탈린, 강철권력』, 윤길순 옮김, 서울: 교양인.

쉬체르비나 외(1986)『소련현대문학비평』, 이강은 편역, 서울: 한겨레.

스미스, 스티브(2007)『러시아혁명-1917년에서 네프까지』, 류한수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파이지스, 올랜도(2005)『나타샤댄스』, 채계병 옮김,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Азадовский, М. К.(1924) *Беседы собирателя. Пособие для собирателей устной народной поэзи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Сибири,* Иркут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Иркутск».

Азбелев, С. Н.(1974) “К определению понятия «Фольклор»,”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 3, Л., С. 94-113.

Аникин, В. П.(1953) “О специф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4, М., С. 80-87.

Астахова, А. М.(ред.)(1940) *Былины П. И. Рябинина-Андреева.* Петрозаводск: Каргосиздат.

_____(ред.)(1941) *Былины пудожскогоо края,* Петрозаводск: Госиздат.

_____, И. П. Дмитраков и А. Н. Лазанова(ред.)(1952) *Оче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М.-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Бахтин, В. С.(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В связи с теоретическими положениями книги «Оче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2, М., С. 152-162.

Богатырёв, П. Г.(ред.)(1954a) “Ленин и Сталин о народном поэт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С. 31-35.

_____(1954b) “Роль решений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звитии сове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С. 36-38.

_____(1971) “Фольклор как особая форма творчества,”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скусство», С. 369-383.

Богданов, А. А.(1924) “Пролетариат и искусство(1918),” *О пролетарской культуре(1904~1924)*, Л.: Издательск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Книга», С. 117-124.

Горький, Максим(1931) “О литературе и прочем,” *Правда и Известия ЦИК СССР и ВЦИК*, номер 157 от 9 июня.

_____(1953a) “Доклад на Первом всесоюзном съезде советских писателей 17 августа 1934 год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7: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33-1936)*,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288-322.

_____(1953b) “О литератур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5: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28-1931)*,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226-238.

_____(1953c) “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 реализм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 27: *Статьи, доклады, речи, приветствия (1933-1936)*,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 5-11.

_____, Л. З. Мехлис и А. И. Стецкий(ред.)(1937) *Творчество народов СССР,* М.: Правда.

Елеонская, Е. Н.(ред.)(1914) *Сборник великорусских частушек*, М.

Зеленин, Д. К.(ред.)(1903) *Песни деревенской молодежи,* Вятка.

Зуева, Т. В. и Б. П. Кирдан(2001)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Карлтон, Грегори(2000) “На похоронах живых: теория «живого человека»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героя в раннем осцреализме,”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339-351.

Келтуяла, В. А.(1911) *Курс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Ч. I, Кн. II, М.

Керженец, П.(1937)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народного прошлого*, М.-Л.: Искусство.

Ленин, В. И.(1967) “О пролетарской культуре(1920),”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41,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336-337.

Ленин и Сталин в поэзии народов СССР(1938)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Леонтьев, Н.(1948) “Затылком к будущему,” *Новый мир,* № 9, М., С. 249-266.

Липовецкий, Марк(2002) “«Тараканище» Сталина,” *Советское богатство,*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220-240.

Миллер, В. Ф.(1924) *Очер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былинного эпоса,* Т. III, М.: Госиздат.

Миллер, О. Ф.(1869) *Илья Муромец и богатырство киевское. Сравнительно-крит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оевым составом народного русского эпоса,* СПб.

Найман, Эрик(2002) “Чубаровское дело: Групповое изнасилование и утопическое желание,” *Советское богатство*,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52-82.

Нечаев, А. и Н. Рыбакова(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По поводу статьи В. С. Бахтин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3, М., С. 134-141.

Новый мир(1954) № 8, М.

“О Пролеткультах,” *Правда,* 1 декабря 1920 года.

Попов, В.(ред.)(1939) *Новины Марфы Семеновны Крюковой,* М.: Гослитиздат.

Путилов, Б.(1954) “О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поэт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 *Звезда,* № 2(февраль), М.-Л., С. 144-151.

Серов, Вадим(2003) “Инженеры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 *Энциклопедичечский словарь крылатых слов и выражений,*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ОКИД-Пресс, С. 56.

Сидельников, В. М.(ред.)(1943) *Печорский фольклор,* Архангельск: Архангельское област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имаков, В. И.(ред.)(1913) *Сборник деревенских частушек,* Ярославль.

Скафтымов, А. П.(1924) *Поэтика и генезис былин,* М., Саратов: Книго-

издательство В. З. Яксанова.

Соколов, Ю. М.(1926) “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ольклор,* Т. 1, М.: ГАХН, С. 5-29.

_____(ред.)(1939) *Самое дорогое. Сталин в народном эпосе.*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_____(1941a) “Основные линии развития сове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Советский фольклор*, № 7, М., С. 38-53.

_____(1941b)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М.: Упедгиз.

Соколова, В. К.(1965) “Советска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к 50-летию Октября,” *Русска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ысшая школа», С. 404-414.

Соколовы, Б. М. и Ю. М.(1926) *Поэзия деревни.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собиран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устной словестности,* М: «Новая Москва».

Чистов, К. В.(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4, М., С. 105-111.

_____(1964)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или коллективное,”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ы,* № 6, М., С. 122-126.

Чичеров, В.(1954)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поэт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овый мир*, № 8, М., С. 203-216.

Шведова, Л.(1953) “О некоторых проблемах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 2, С. 88-94.

Юстус, Урсула(2000)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ай: соцреализм и фольклор,” *Соцреалистический канон,* СПб.: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71-79.

Miller, Frank J.(1990) *Folklore for Stalin,* New York: M. E. Sharpe.

Резюме

От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 псевдофольклору: по следам советской фольклористики с 1910-х годов по 1970-е годы (From Literature of the Masses to Pseudo-Folklore: Russian Folklore and Ideology in Literary Criticism of the Soviet Era)

Со, Сон Джон*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удьба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как отражение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зменения с 1910-х годов по 1970-е годы. В начале двадцатого века в России отношение к фольклору было двойственным: либо как к надежному образцу форм для н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либо как к пережиткам прошлого. При этом было ясно, что эта оценка зависела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и. Особенно Пролеткульт, пренебрегая ценностями крестьянской традиции, противопоставил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пролетарской культуре. В 1920-е годы Ленин, называв отриц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Пролеткульта и футуристов к фольклору нигилизмом, примирился с традицией, в том числе с фольклором. При сталинской диктатуре поли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тражалось во мног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появился термин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как внедряемый государством метод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 фольклор был переосмыслен как прообраз этого нового метода. Народность и коллективность стали критериями фольклора, и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стало тождественным фольклору. В сталинское время граница между литературой и фольклором потускнела, оправдывалось вмешатель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процесс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о после смерти Сталина сразу разгорелась дискуссия о советском фольклоре. После 1960-х годов советская фольклористика начала изучать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как таково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оветская культура, русский фольклор, псевдофольклор,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идеология, Сталин
(Soviet Culture, Russian Folklore, Pseudo-Folklore, Literature of the Masses, Ideology, Stalin)

---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선 정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산하 러시아문학연구소에서 12세기 키예프 루시의 작가인 키릴 투롭스키와 키예프 루시 문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대 러시아 문학이 주요 연구 분야이나, 최근 러시아 구술문학과 현실, 러시아 구술문학과 기록 문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이반 뇌제와 안드레이 쿠릅스키 서한에 나타난 문학적 전통과 권력」,「역사적 현실과 문화적 기억: 기록 문학과 구술 문학에 나타난 표트르 대제의 형상」,「구술 문학 속에 나타난 이반 뇌제의 형상: 집단적 기억과 역사 인식에 대하여」등이 있다.

Seo, Seon Jeong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wrote her Ph.D dissertation on Kirill Turovskij, Russian author of 12 century and literature of Kievan Rus' in 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at Russian Academy of Sciences. Her main research area is old Russian literature and recently her academic interest has extended to Russian folklore. Among her recent articles are “Literary Tradition and Authority in Letters between Ivan IV and Andrej Kurbskij,” “The Image of Ivan the Terrible in Russian Folklore -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Historical Reality and Cultural Memory: The Image of Peter I in Russian Literature and Folklore.”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4. 3. 31
논문심사일: 2014. 4. 1 ~ 5. 7
심사완료일: 2014. 5. 9